

2017년 10월 21일 생활안전분야 국가직 9급 국어 ㉠책형 해설



관리형 프리미엄독서실
잇을

관리형 프리미엄 독서실 잇을 국어팀 설승환

오늘 시험보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험을 잘 보신 분들께는 큰 축하를, 기대했던 것보다 성적이 잘 안 나오신 분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국가직 9급 시험은 적당한 변별력을 지닌 시험이었고, 6월 지방직 9급 시험은 어휘/한자 문제가 너무 많아 정말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오늘 국가직 9급 시험은 위 시험들보다는 쉬웠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들은 ‘플만하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들, 오늘 하루는 꼭 쉬십시오.

[총평] 올해 치러졌던 9급 국어 시험들과 비교해 보면,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되었음.

출제영역	문항 수	문항	난이도	문항 내용
국어문법	4문항	3	하	통사론_높임법
		4	중	형태론_동일한 품사 찾기
		8	상	형태론_불규칙 활용
		14	중	형태론_단어의 형성
어문규정	3문항	2	중	한글 맞춤법_띄어쓰기
		12	하	한글 맞춤법_구개음화 규정
		13	중	한글 맞춤법_종합
어휘	1문항	1	중	어휘의 쓰임
한자	2문항	5	중상	한자 성어의 쓰임
		10	상	한자어
문학	5문항	6	하	수필_법정의 ‘무소유’
		7	중	고전시가_시간적 개념의 공간적 개념화
		16	중하	현대소설_김승옥의 ‘무진기행’
		19	상	현대시_박재삼의 ‘울음이 타는 가을 강’
		20	중	고전소설_허균의 ‘홍길동전’
비문학	3문항	9	중하	필자의 견해 이해하기
		17	중하	중심 내용 이해하기
		18	중하	접속어 추론하기
쓰기	2문항	11	하	조건에 따른 글쓰기
		15	하	고쳐쓰기

<각 문항별 해설>

문 1.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금방 비가 올 것처럼 하늘이 어둡다.
할머니는 방금 전에 난 소리에 깜짝 놀라셨다.
- ② 그는 근본이 미천하여 남들의 업신여김을 받았다.
자발적 참여자를 근간으로 하여 조직이 결성되었다.
- ③ 친구들에게 그는 완전히 타락한 사람으로 알려졌다.
그는 역모 사건에 휘말려 몰락한 집안의 자손이었다.
- ④ 비가 올 때에는 순회공연을 지연하기로 하였다.
시험 시작 날짜가 9월 5일에서 9월 7일로 연장되었다.

[정답] ④ / 난이도 중

[정답 해설] ‘지연하다’는 ‘무슨 일을 더디게 끌어서 시간을 늦추다.’는 뜻으로, ‘비가 올 때에는 순회공연을 지연하기로 하였다.’에서, 순회공연을 더디게 끌려고 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기서 ‘지연하기’는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취소하다’ 정도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연장되다’는 ‘시간이나 거리 따위가 본래보다 길게 늘어나다.’, ‘어떤 일이 계속되다. 또는 하나로 이어지다.’는 뜻으로, ‘시험 시작 날짜가 9월 5일에서 9월 7일로 연장되었다.’에서 시간/거리가 원래보다 길게 늘어난 것도 아니고, 어떤 일이 계속되는 것도 아니므로 여기서 ‘연장되었다.’는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연기되었다’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방금’과 ‘금방’은 같은 뜻을 지닌 어휘로, ‘금방 비가 올 것처럼 하늘이 어둡다.’에서는 ‘말하고 있는 시점과 같은 때’라는 뜻으로, ‘할머니는 방금 전에 난 소리에 깜짝 놀라셨다.’에서는 ‘말하고 있는 시정보다 바로 조금 전’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 ② ‘근본’은 ‘사물의 본질이나 본바탕’, ‘자라 온 환경이나 혈통’이라는 뜻이고, ‘근간’은 ‘사물의 바탕이나 중심이 되는 중요한 것’이라는 뜻이다. 위 두 문장에서 ‘근본’과 ‘근간’은 모두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 ③ ‘타락하다’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빠지다.’는 뜻이고, ‘몰락하다’는 ‘재물이나 세력 따위가 쇠하여 보잘것없어지다.’, ‘멸망하여 모조리 없어지다.’는 뜻이다. 위 두 문장에서 ‘타락하다’와 ‘몰락하다’는 모두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한 줄 평] ④번의 ‘연장되었다’가 확실히 이상하다는 것을 바로 알았으면 좋았겠다.

문 2.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물어도 보았다.
- ② 매일같이 지각하던 김 선생이 직장을 그만두었다.
- ③ 이번 시험에서 우리 중 안 되어도 세 명은 합격할 듯하다.
- ④ 지난주에 발생한 사고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회의를 했다.

[정답] ③ / 난이도 중

[정답 해설] ‘이번 시험에서 우리 중 안 되어도 세 명은 합격할 듯하다.’에서 ‘안 되어도’의 띄어쓰기가 틀렸다. ‘일정한 수준이나 정도에 이르지 못하다.’의 뜻을 지닌 한 단어 ‘안되다’의 뜻이기 때문이다. 사전에 위의 용례가 그대로 나와 있다.

안-되다' [발음 : 안되다/안웨다]   ★★★

 단어장 저장

원형 : 안²

발음녹음 

관련 어휘

  

동사

1. 일, 현상, 물건 따위가 좋게 이루어지지 않다.

- 올해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과일 농사가 안돼 큰일이다.
- 공부가 안돼서 잠깐 쉬고 있다.

2. 사람이 훌륭하게 되지 못하다.

- 자식이 안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다.

3. 일정한 수준이나 정도에 이르지 못하다.

- 이번 시험에서 우리 중 안되어도 세 명은 합격할 것 같다.

[오답 풀이]

- ① ‘물어도 보았다.’의 띄어쓰기를 판별해야 한다.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고 붙여쓰는 것을 허용하나, 본용언 뒤에 조사가 결합할 때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을 띄어써야 한다. 그러므로 ‘물어도 보았다.’의 띄어쓰기는 적절하다.
- ② ‘매일같이’의 띄어쓰기를 판별해야 한다. 여기서 ‘같이’는 앞말이 나타내는 그때를 강조하는 격 조사로서 쓰였으므로, 앞에 오는 체언인 ‘매일’과 붙여써야 한다.
- ④ ‘지난주’와 ‘할지’의 띄어쓰기를 판별해야 한다. ‘지난주’는 ‘이 주의 바로 앞의 주’라는 뜻을 지닌 한 단어이므로 붙여써야 한다. 그리고 ‘할지’의 경우 ‘하다’의 어간 ‘하-’에 어미 ‘-ㄹ지’가 결합한 형태이므로 붙여써야 한다.

[한 줄 평] 띄어쓰기 규정에서 자주 출제되는 전형적인 문제

문 3. 높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ㄱ. 할아버지께서 노인정에 가셨습니다.
- ㄴ. 선생님께서는 휴일에는 댁에 계십니다.
- ㄷ. 여러분, 아이들을 자리에 앉혀 주십시오.
- ㄹ. 우리는 할머니를 모시고 산책을 다녀왔다.

- ① ㄱ, ㄴ: 문장의 주체를 높이고 있다.
- ② ㄱ, ㄴ, ㄷ: 듣는 이를 높이고 있다.
- ③ ㄴ, ㄹ: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여 높임을 표현하고 있다.
- ④ ㄷ, ㄹ: 목적어를 높이고 있으므로 객체를 높이는 표현이다.

[정답] ④ / 난이도 하

[정답 해설] ‘ㄹ’은 목적어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특수 어휘 ‘모시다’를 사용하는 객체 높임법이 사용되었지만, ‘ㄷ’은 목적어인 ‘아이들’이 높임의 대상이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ㄱ에서는 문장의 주체, 즉 주어인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주격 조사 ‘께서’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고 있고, ㄴ에서는 문장의 주체, 즉 주어인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 접미사 ‘-님’, 주격 조사 ‘께서’와 함께 특수 어휘 ‘계시다’를 사용하고 있다.
- ② ㄱ과 ㄴ에서는 종결 어미 ‘-습니다’를 사용하여 듣는 이를, ㄷ에서는 종결 어미 ‘-십시오’를 사용하여 듣는 이를 높이고 있다. 듣는 이를 높이는지의 여부는 그 문장의 종결 어미를 살펴보면 된다.
- ③ ㄴ에서는 특수 어휘 ‘계시다’를 통해 주체 높임을, ㄹ에서는 특수 어휘 ‘모시다’를 통해 객체 높임을 표현하고 있다.

[한 줄 평] 높임법은 단골 출제 주제이다.

문 4.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같은 것은?

- ① 모두 제 잘못입니다.
심판은 규칙을 잘못 적용하여 비난을 받았다.
- ② 집에 도착하는 대로 편지를 쓰다.
큰 것은 큰 것대로 따로 모아 두다.
- ③ 비교적 교통이 편리한 곳에 사무실이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비교적 낮은 편이다.
- ④ 이 사과가 맛있게 생겼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정답] ③ / 난이도 중

[정답 해설] ‘비교적 교통이 편리한 곳에 사무실이 있다.’에서 ‘비교적’은 ‘편리한’을 수식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비교적 낮은 편이다.’에서 ‘비교적’은 ‘낮은’을 수식하고 있다. 각각 용언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모두 부사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모두 제 잘못입니다.’에서 ‘잘못’은 뒤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명사임을 알 수 있다. ‘심판은 규칙을 잘못 적용하여 비난을 받았다.’에서 ‘잘못’은 뒤에 조사가 결합할 수 없고 용언 ‘적용하여’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부사임을 알 수 있다.
- ② ‘집에 도착하는 대로 편지를 쓰다.’에서 ‘대로’는 앞에 용언의 관형사형이 관형어로 쓰이는 ‘도착하는’의 수식을 받고 있으므로 의존 명사임을 알 수 있다. ‘큰 것은 큰 것대로 따로 모아 두다.’에서 ‘대로’는 앞에 의존 명사 ‘것’이 결합되어 있으므로 조사임을 알 수 있다.
- ④ ‘이 사과가 맛있게 생겼다.’에서 ‘이’는 뒤에 조사가 결합할 수 없고 체언 ‘사과’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관형사임을 알 수 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에서 ‘이’는 뒤에 조사 ‘보다’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체언 중에서도 대명사임을 알 수 있다.

[한 줄 평] 높임법과 마찬가지로, 품사 통용도 단골 출제 주제이다.

문 5. 밑줄 친 한자 성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는 이번 실패에 굴하지 않고 捲土重來를 꿈꾸고 있다.
- ② 그는 魚魯不辨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 ③ 그는 이번 사건에 呑不關焉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 ④ 그의 말이 羊頭狗肉으로 평가받는 것은 걸만 그럴듯해서이다.

[정답] ② / 난이도 중상

[정답 해설] ‘그는 魚魯不辨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에서 ‘魚魯不辨’을 독음하면 ‘어로불변’이다. ‘어로불변’이란 ‘어(魚) 자와 노(魯) 자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아주 무식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위 문장에서 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그는 이번 실패에 굴하지 않고 捲土重來를 꿈꾸고 있다.’에서 ‘捲土重來’를 독음하면 ‘권토중래’이다. ‘권토중래’란 어떤 일에 실패한 뒤에 힘을 가다듬어 다시 그 일에 착수함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위 문장에서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③ ‘그는 이번 사건에 呑不關焉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에서 ‘呑不關焉’을 독음하면 ‘오불관언’이다. ‘오불관언’이란 ‘나는 그 일에 상관하지 아니함.’의 뜻이므로 위 문장에서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④ ‘그의 말이 羊頭狗肉으로 평가받는 것은 걸만 그럴듯해서이다.’에서 ‘羊頭狗肉’을 독음하면 ‘양두구육’이다. ‘양두구육’이란 ‘양의 머리를 걸어 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으로, 걸보기만 그럴듯하게 보이고 속은 변변하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이다. 위 문장에서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한 줄 평] 한자 성어, 결국은 극복해야 할 부분이다.

문 6.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이때 온몸으로, 그리고 마음속으로 절절히 느끼게 되었다. 집착이 괴로움인 것을. 그렇다. 나는 난초에게 너무 집념해 버린 것이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했다. 난을 가꾸면서는 산철에도 나그넷길을 떠나지 못한 채 꼼짝을 못 했다. 밖에 불일이 있어 잠시 방을 비울 때면 환기가 되도록 들창문을 열어 놓아야 했고, 분(盆)을 내놓은 채 나가다가 뒤미처 생각하고는 되돌아와 들여놓고 나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우리들의 소유 관념이 때로는 우리들의 눈을 멀게 한다. 그래서 자기의 분수까지도 돌볼 새 없이 들뜬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다. 내 이 육신마저 버리고 훌훌히 떠나갈 것이다. 하고많은 물량일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물건으로 인해 마음을 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번쯤 생각해 볼 말씀이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소유의 역리(逆理)이니까.

- ① 역설과 예시를 사용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논증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③ 난초를 의인화하여 소유의 가치를 깨우치고 있다.
- ④ 단호한 어조로 독자의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정답] ① / 난이도 하

[정답 해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는 역설적 표현과 난초에 집념했던 사례를 통해, 무소유의 역리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②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 ③ 이 수필은 무소유의 가치를 깨우치고 있지, 소유의 가치를 깨우치고 있지 않다. 더불어 ‘난초’를 의인화하고 있지도 않다.
- ④ 단호한 어조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한 줄 평] 빠르게 정답을 고르고 넘어갔어야 할 문제

문 7. ㉠에 들어갈 시조로 적절한 것은?

우리말에서 공간적 개념은 흔히 시간적 개념으로 바뀌어 표현되곤 한다. 예컨대 공간 표현인 ‘뒤’가 시간 표현으로 ‘나중’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문학 작품에서 시간적 개념이 공간적 개념으로 바뀌어 표현되는 경우도 있다. 그 예로 다음 시조를 보자.

㉠

- ① 어저 내 일이야 그럴 줄을 모로드나
이시라 후더면 가라마는 제 구투여
보내고 그리는 情은 나도 몰라 후노라
- ② 靑山은 내 뜻이오 綠水는 님의 情이
綠水 흘러간들 靑山이야 變홀손가
綠水도 靑山을 못 니져 우러 예어 가논고
- ③ 冬至入들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 내어
春風 니불 아리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른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퍼리라
- ④ 山은 넷 山이로되 물은 넷 물이 안이로다
晝夜에 흘으니 넷 물이 이실쏜야
人傑도 물과 갓으야 가고 안이 오노미라

[정답] ③ / 난이도 중

[정답 해설] ③번 시조에서 시적 화자는, 시간적 개념인 ‘밤’을 ‘한 허리를 베어 내어’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로 공간적 개념으로 바뀌어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해설 생략)

[한 줄 평] 위 네 편 모두 황진이의 시조로, 황진이의 시조는 필수 고전문학 작품이다.

문 8. 밑줄 친 단어의 불규칙 활용 유형이 같은 것은?

- ① 나뭇잎이 누르니 가을이 왔다.
나무가 높아 오르기 힘들다.
- ② 목적지에 이르기는 아직 멀었다.
앞으로 구르기를 잘한다.
- ③ 주먹을 휘두르지 마라.
머리를 짧게 자른다.
- ④ 그를 불운한 천재라 부른다.
색깔이 아주 푸르다.

[정답] ③ / 난이도 상

[정답 해설] 불규칙 활용은 반드시 그 용언의 어간에 <모음 어미>를 결합하여 어간/어미의 형태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 ‘주먹을 휘두르지 마라.’에서 ‘휘두르지’의 기본형은 ‘휘두르다’이고 어간은 ‘휘두르-’이다. 여기에 모음 어미 ‘-어’를 결합하면 어간 ‘휘두르-’에서 ‘르’의 ‘-’가 탈락하고 ‘두’ 밑에 ‘ㄹ’이 덧생겨 ‘휘둘ㄹ-’이 된다. 이것이 모음 어미 ‘-어’와 결합하여 ‘휘둘러’가 된다. ‘머리를 짧게 자른다.’에서 ‘자른다’의 기본형은 ‘자르다’이고 어간은 ‘자르-’이다. 여기에 모음 어미 ‘-아’를 결합하면 어간 ‘자르-’에서 ‘르’의 ‘-’가 탈락하고 ‘자’ 밑에 ‘ㄹ’이 덧생겨 ‘잘ㄹ-’이 된다. 이것이 모음 어미 ‘-아’와 결합하여 ‘잘라’가 된다. ‘휘두르다’와 ‘자르다’는 모두 어간의 형태가 변하는 ‘르’ 불규칙 용언이다.

[오답 풀이]

① ‘나뭇잎이 누르니 가을이 왔다.’에서 ‘누르니’의 기본형은 ‘누르다’이고 어간은 ‘누르-’이다. 여기에 모음 어미 ‘-어’를 결합하면 그 어미가 ‘-러’로 바뀌어 ‘누르러’가 된다. ‘누르다’는 어미의 형태가 변하는 ‘러’ 불규칙 용언이다. ‘나무가 높아 오르기 힘들다.’에서 ‘오르기’의 기본형은 ‘오르다’이고 어간은 ‘오르-’이다. 여기에 모음 어미 ‘-아’를 결합하면 어간 ‘오르-’에서 ‘르’의 ‘-’가 탈락하고 ‘오’ 밑에 ‘ㄹ’이 덧생겨 ‘올ㄹ-’이 된다. 이것이 모음 어미 ‘-아’와 결합하여 ‘올라’가 된다. ‘오르다’는 어간의 형태가 변하는 ‘르’ 불규칙 용언이다.

② ‘목적지에 이르기는 아직 멀었다.’에서 ‘이르기는’의 기본형은 ‘이르다’이고 어간은 ‘이르-’이다. 여기에 모음 어미 ‘-어’를 결합하면 그 어미가 ‘-러’로 바뀌어 ‘이르러’가 된다. ‘이르다’는 어미의 형태가 변하는 ‘러’ 불규칙 용언이다(<어떤 장소나 시간에 달다>의 의미를 지닌 ‘이르다’는 ‘러’ 불규칙 용언임에 유의하자). ‘앞으로 구르기를 잘한다.’에서 ‘구르기를’의 기본형은 ‘구르다’이고 어간은 ‘구르-’이다. 여기에 모음 어미 ‘-어’를 결합하면 어간 ‘구르-’에서 ‘르’의 ‘-’가 탈락하고 ‘구’ 밑에 ‘ㄹ’이 덧생겨 ‘굴ㄹ-’이 된다. 이것이 모음 어미 ‘-어’와 결합하여 ‘굴러’가 된다. ‘구르다’는 어간의 형태가 변하는 ‘르’ 불규칙 용언이다.

④ ‘그를 불운한 천재라 부른다.’에서 ‘부른다’의 기본형은 ‘부르다’이고 어간은 ‘부르-’이다. 여기에 모음 어미 ‘-어’를 결합하면 어간 ‘부르-’에서 ‘르’의 ‘-’가 탈락하고 ‘부’ 밑에 ‘ㄹ’이 덧생겨 ‘불ㄹ-’이 된다. 이것이 모음 어미 ‘-어’와 결합하여 ‘불러’가 된다. ‘부르다’는 어간의 형태가 변하는 ‘르’ 불규칙 용언이다. ‘색깔이 아주 푸르다.’에서 ‘푸르다’는 어간이 ‘푸르-’이다. 여기에 모음 어미 ‘-어’를 결합하면 그 어미가 ‘-러’로 바뀌어 ‘푸르러’가 된다. ‘푸르다’는 어미의 형태가 변하는 ‘러’ 불규칙 용언이다.

[한 줄 평] 용언의 규칙/불규칙 활용은 고난도 문제로 최근에 자주 출제되고 있다.

문 9. 다음 글에 나타난 필자의 견해로 볼 수 없는 것은?

서양에서 주인공을 ‘히어로(hero)’, 즉 ‘영웅’이라고 부른 것은 고대 서사시나 희극의 소재가 되던 주인공들이 초인간적인 능력을 가진 인물들이었기 때문이다. 신화적 세계관 속에서 영웅들은 신과 밀접한 관계를 맺거나 신의 후손이기도 하였다.

신화와 달리 문학 작품은 인물의 행위를 단일한 것으로 통일시킨다. 영웅들의 초인간적이고 신적인 행위는 차차 문학 작품의 구조에 제한되어 훨씬 인간화되었다. 문학 작품의 통일된 구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대폭 수정되거나 제거되는 수밖에 없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이 ‘보통보다 우수한 인물’을 모방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문학의 인물이 신화의 영웅이 아닌 보통의 인간임을 지적한 것이다. 극의 주인공은 작품의 통일성을 기하는 데 기여하는 중심적인 인물이면 된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낭만주의 및 역사주의 비평가들은 작중 인물을 실제 인물인 양 따로 떼어 내어, 그의 개인적인 역사를 재구성해 보려고도 하였다. 그들은 영웅이라는 표현 대신 ‘성격(인물, character)’이라는 개념을 즐겨 썼는데, 이 용어는 지금도 비평계에서 애용되고 있다.

- ① 영웅이라는 말은 고대의 예술적 조건과 자연스럽게 관련된다.
- ② 신화의 영웅은 문학 작품에 와서 점차 인간화되었다.
- ③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보통보다 우수한 인물’은 신화적 영웅과 다르다.
- ④ 역사주의 비평가들은 작중 인물을 역사적 영웅으로 재평가 하려고 했다.

[정답] ④ / 난이도 중하

[정답 해설] 넷째 문단에 의하면, 역사주의 비평가들은 ‘영웅’이라는 표현 대신 ‘성격’이라는 개념을 즐겨 쓰며, 작중 인물을 실제 인물인 양 따로 떼어 내어 그의 개인적인 역사를 재구성해 보려고도 하였다. 그러므로 ‘역사주의 비평가들은 작중 인물을 역사적 영웅으로 재평가하려고 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첫째 문단 첫째 줄~셋째 줄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둘째 문단 둘째 줄~셋째 줄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셋째 문단 첫째 줄~셋째 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 줄 평] 집중해서 풀었다면 어렵지 않게 답을 고르고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

문 10. ㉠ ~ ㉡에 들어갈 한자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토론은 어떤 의견이나 제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뚜렷한 의견 대립을 가지는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 형태이다. 찬성자와 반대자는 각기 (㉡)를 밝히고, 상대방의 주장을 비판하며, 주장의 정당성과 합리성이 상대방에게 인정될 수 있도록 자기의 주장을 펴 나간다. 토론에서 자기 주장이 옳다는 것을 상대방이 인정하도록 하려면, 상대로 하여금 (㉢)의 여지를 가지지 못하게 해야 한다. 따라서 토론 참가자는 (㉣)에 대한 충분한 자료 수집 및 정보 검토를 통해 자신의 주장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자기 의견을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화법(話法)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 | | | | | |
|---|----|----|----|----|
| | ㉠ | ㉡ | ㉢ | ㉣ |
| ① | 論議 | 論據 | 論駁 | 論題 |
| ② | 論議 | 論制 | 論遽 | 論搏 |
| ③ | 論意 | 論旨 | 論難 | 論述 |
| ④ | 論意 | 論志 | 論據 | 論題 |

[정답] ① / 난이도 상

[정답 해설] ㉠에 들어갈 말이 ①, ②번은 ‘論義’이고, ③, ④번은 ‘論意’로 나와 있는데, ‘論義’는 ‘어떤 문제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내어 토의함.’이라는 뜻이고, ‘論意’는 ‘논하는 말이나 글의 뜻, 의도’라는 뜻이므로, ㉠에 들어갈 말로는 ‘論義’가 적절하다. ㉡에 들어갈 말이 ①번은 ‘論據’이고 ②번은 ‘論制’인데, ‘論據’는 ‘어떤 이론이나 논리, 논설 따위의 근거’라는 뜻이고, ‘論制’는 ‘논제’로 독음되기는 하지만 ‘논설이나 논문, 토론 따위의 주제나 제목’의 뜻을 지닌 ‘논제’는 ‘論題’로 표기한다. ‘論制’라는 말은 없다. 그래서 ㉡에 들어갈 말로는 ‘論據’가 적절하다. ㉢에 들어갈 말은 ‘어떤 주장이나 의견에 대하여 그 잘못된 점을 조리 있게 공격하여 말함.’의 뜻을 지닌 ‘論駁’이다. ㉣에 들어갈 말은 ‘논설이나 논문, 토론 따위의 주제나 제목’의 뜻을 지닌 ‘論題’이다.

[오답 풀이]

③번 ㉠의 ‘論旨(논지)’ : 논하는 말이나 글의 취지.

④번 ㉠의 ‘論志(논지)’ : ‘論語’의 선진편에 나오는 부분

②번 ㉡의 ‘論遽(논거)’ : 이러한 단어 없음.

③번 ㉡의 ‘論難(논란)’ : 여럿이 서로 다른 주장을 내며 다툼.

②번 ㉢의 ‘論搏(논박)’ : 이러한 단어 없음.

③번 ㉢의 ‘論述(논술)’ : 어떤 것에 관하여 의견을 논리적으로 서술함.

[한 줄 평] <화법> 또는 <말하기> 부분에서 나오는 용어의 한자 표기를 정확하게 물어본 고난도 문제. 한자 문제가 다른 영역과 융합되고 있는 것이 주요 경향인 듯 하다.

문 11. 다음을 모두 만족시키는 표어로 적절한 것은?

- 공중도덕 지키기를 홍보한다.
- 대구의 표현 방식을 활용한다.
- 행위의 긍정적 효과를 비유적으로 표현한다.

- ① 신호 위반, 과속 운전 / 모든 것을 앗아 갑니다
- ② 아파트를 뒤흔드는 음악 소리 / 이웃들을 괴롭히는 고문 장치
- ③ 노약자에게 양보하는 한 자리 / 당신에게 찾아오는 행복의 문
- ④ 공공 장소에서 실천하는 금연 / 우리의 건강을 지켜 줍니다

[정답] ③ / 난이도 하

[정답 해설] ③번은 ‘노약자에게 양보하는 한 자리’에서 1번 조건(공중도덕 지키기를 홍보)을, ‘노약자에게 양보하는, 당신에게 찾아오는’에서 2번 조건(대구 표현 방식 활용)을, ‘행복의 문’에서 3번 조건(행위의 긍정적 효과를 비유적으로 표현)을 모두 만족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모든 조건을 만족하고 있지 않다.
- ② 1번과 2번 조건은 만족하고 있지만, 3번 조건이 없다.
- ④ 1번 조건은 만족하고 있지만, 2번과 3번 조건이 없다.

[한 줄 평] 노코멘트

문 12. 다음 한글 맞춤법 제6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ㄷ, ㅌ’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적에는, 그 ‘ㄷ, ㅌ’이 ‘ㅈ, ㅊ’으로 소리 나더라도 ‘ㄷ, ㅌ’으로 적는다.

- ① 예시로는 ‘해돋이, 같이’가 있다.
- ② 위 조항은 한글 맞춤법 총칙 중 ‘어법에 맞게 적는다’는 원리를 따른 것이다.
- ③ 종속적 관계란 체언, 어근, 용언 어간 등에 조사, 접사, 어미 등이 결합하는 관계를 말한다.
- ④ ‘잔디, 버티다’는 하나의 형태소에서 ‘ㄷ, ㅌ’과 ‘ㅣ’가 만난 것으로서 위 조항의 예에 해당된다.

[정답] ④ / 난이도 하

[정답 해설]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온다는 것은, ③번과 같이 체언, 어근, 용언 어간 등에 조사, 접사, 어미 등이 결합한다는 것이다. 이를 볼 때 <한글 맞춤법 제6항>에서 설명하고 있는 구개음화는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나는 사실임을 알 수 있다. 하나의 형태소에서 ‘ㄷ, ㅌ’과 ‘ㅣ’가 만난 것은 위 조항의 예에 해당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② ‘ㄷ, ㅌ’이 ‘ㅈ, ㅊ’으로 소리 나더라도 ‘ㄷ, ㅌ’으로 적으므로, 이는 한글 맞춤법 총칙 중 ‘어법에 맞게 적는다’는 원리를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한 줄 평] <구개음화>만 제대로 공부했어도 빠르게 답을 고를 수 있었던 문제

문 13.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이 모두 옳은 것은?

- ① 일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일어나 나갔다.
그는 여전히 들은 체도 하지 않고 앉아 있다.
- ② 가을 논의 벼가 한참 무르익고 있었다.
그는 가방을 한참 바라보더니 가 버렸다.
- ③ 둘 사이는 친분이 두껍다.
우리나라의 야구 선수층은 매우 두텁다.
- ④ 나이가 들어 머리가 많이 벗겨졌다.
바나나 껍질이 잘 벗겨지지 않았다.

[정답] ① / 난이도 중

[정답 해설] ‘일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일어나 나갔다.’에서 ‘채’는 ‘어떤 상태나 동작이 다 되거나 이루어졌다고 할 만한 정도에 아직 이르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부사이므로,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그는 여전히 들은 체도 하지 않고 앉아 있다.’에서 ‘체’는 ‘그렇듯하게 꾸미는 거짓 태도나 모양(=척)’을 말하는 의존 명사이므로, 적절하게 사용되었다.

[오답 풀이]

② ‘한참’은 ‘시간이 상당히 지나는 동안’이라는 뜻이고, ‘한창’은 ‘어떤 일이 가장 활기 있고 왕성하게 일어나는 때. 또는 어떤 상태가 가장 무르익은 때.’라는 뜻이므로, ‘가을 논의 벼가 한참 무르익고 있었다.’, ‘그는 가방을 한참 바라보더니 가 버렸다.’와 같이 써야 한다.

③ ‘두껍다’는 ‘두께가 보통의 정도보다 크다.’, ‘층을 이루는 사물의 높이나 집단의 규모가 보통의 정도보다 크다.’라는 뜻이고, ‘두텁다’는 ‘신의, 믿음, 관계, 인정 따위가 굳고 깊다.’라는 뜻이므로, ‘둘 사이는 친분이 두텁다.’, ‘우리나라의 야구 선수층은 매우 두껍다.’와 같이 써야 한다.

④ ‘벗어지다’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서 ‘머리카락이나 몸의 털 따위가 빠지다.’의 뜻이 있고, ‘벗겨지다’는 ‘덮이거나 씌워진 물건이 외부의 힘에 의하여 떼어지거나 떨어지다.’라는 뜻이므로, ‘나이가 들어 머리가 많이 벗겨졌다.’, ‘바나나 껍질이 잘 벗겨지지 않았다.’와 같이 써야 한다.

[한 줄 평] 헛갈리는 맞춤법 부분은 마르고 닳도록 공부해놓아야 한다.

문 14.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바다’, ‘맑다’는 어근이 하나인 단일어이다.
- ② ‘회덮밥’은 파생어 ‘덮밥’에 새로운 어근 ‘회’가 결합된 합성어이다.
- ③ ‘결눈질’은 합성어 ‘결눈’에 접미사 ‘-질’이 결합된 파생어이다.
- ④ ‘웃음’은 어근 ‘웃-’에 접미사 ‘-음’이 붙어 명사가 된 파생어이다.

[정답] ② / 난이도 중

[정답 해설] ‘회덮밥’은 비통사적 합성어 ‘덮밥’에 새로운 어근 ‘회’가 결합된 합성어이다.

[오답 풀이]

③ ‘결눈질’은 합성어 ‘결눈’에 접미사 ‘-질’이 결합된 파생어이다. 파생어 ‘눈질’에 어근 ‘결’이 결합된 합성어가 아니다.

[한 줄 평] 이 문제는 예전에 수능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적이 있는 내용이다.

2005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언어영역 14번

135. 문법 수업 시간에 <보기>의 자료를 바탕으로 ‘단어의 형성’에 대해 탐구한 결과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 부분을 어근이라 하며, 어근에 붙어 그 뜻을 제한하는 부분을 접사라고 한다.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를 단일어라 한다. 어근은 다른 어근이나 접사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낸다. 어근이 어근과 결합하면 ‘합성어’라고 하고, 어근이 접사와 결합하면 ‘파생어’라고 한다. 합성어가 새로운 단어로 파생되기도 하고, 파생어가 다른 어근과 결합하여 합성어가 되기도 한다.

- ① ‘바다’, ‘맑다’는 하나의 어근으로 되어 있으니 단일어이다.
- ② ‘밤낮’은 ‘밤’이라는 어근과 ‘낮’이라는 어근이 결합된 합성어이다.
- ③ ‘웃음’은 동사 어근 ‘웃-’에 접미사 ‘-음’이 붙어서 명사가 된 파생어이다.
- ④ ‘결눈질’은 합성어 ‘결눈’에 접미사 ‘-질’이 결합된 파생어이다.
- ⑤ ‘회덮밥’은 파생어 ‘덮밥’에 새로운 어근 ‘회’가 결합된 합성어이다.

문 15. 다음 글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산업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서게 될 지역 주민들도 그 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 그리고 그런 시설이 자기 고장에 들어서는 것을 받아들이려는 사람은 많지 않다. ㉡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내 고장에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공공의 이익을 외면하는 ㉢ 지역 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다.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뒤로 미루면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 나와 내 이웃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이기주의를 타파해야 한다.

- ① ㉠은 앞뒤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 ‘그러나’로 바꾼다.
- ② ㉡은 주제와 상관없는 내용이므로 문단의 통일성을 위해 삭제한다.
- ③ ㉢은 우리말답지 않은 표현으로 ‘지역 이기주의이다’로 순화한다.
- ④ ㉣은 주어와 호응하지 않으므로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로 고친다.

[정답] ② / 난이도 하

[정답 해설] ㉡은 그 앞의 첫째 문장과 둘째 문장을 요약한 말이므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오답 풀이]

- ③ ‘~에 다름 아니다’는 일본식 어투이므로 ‘~이다’로 순화하여 사용해야 한다.
- ④ ㉣과 호응하는 주어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이므로,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와 같이 고쳐 써야 한다.

[한 줄 평] 고쳐쓰기 문제는 늘 어렵지 않게 출제되는 것 같다.

문 16.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진에 명산물이 없는 게 아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것은 안개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면, 밤사이에 진주해 온 적군들처럼 안개가 무진을 뺨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다. 무진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도 안개에 의하여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유배당해 버리고 없었다. 안개는 마치 이승에 한(恨)이 있어서 매일 밤 찾아오는 여귀(女鬼)가 뿜어 내놓은 입김과 같았다. 해가 떠오르고, 바람이 바다 쪽에서 방향을 바꾸어 불어오기 전에는 사람들의 힘으로써는 그것을 헤쳐 버릴 수가 없었다. 손으로 잡을 수 없으면서도 그것은 뚜렷이 존재했고 사람들을 둘러쌌고 먼 곳에 있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떼어 놓았다. 안개, 무진의 안개, 무진의 아침에 사람들이 만나는 안개, 사람들로 하여금 해를, 바람을 간절히 부르게 하는 무진의 안개, 그것이 무진의 명산물이 아닐 수 있을까!

- 김승옥, 「무진기행」 -

- ① 소재의 의미를 비유적 표현을 통해 드러낸다.
- ② 무진이라는 지역의 특징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 ③ ‘나’의 시선으로 전개되는 1인칭 시점의 서술이다.
- ④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사건을 객관적으로 묘사한다.

[정답] ④ / 난이도 중하

[정답 해설] 위 소설에서 1인칭 서술자 ‘나’가 등장하므로, 사건을 객관적으로 묘사할 수가 없다. ③번이 맞다고 판단했으면 ④번을 바로 정답으로 골랐어야 한다.

[오답 풀이]

- ① 1문단 여섯째 줄~일곱째 줄에서 ‘안개’를 ‘마치 이승에 한이 있어서 매일 밤 찾아오는 여귀가 뿜어 내놓은 입김과 같았다.’라고 비유적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② 1문단 첫째 줄~둘째 줄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한 줄 평] 시점, 서술자의 기본 개념만 알고 있었어도 쉽게 맞힐 수 있었던 문제

문 17.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책 없이도 인간은 기억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표현한다. 그런데 책과 책 읽기는 인간이 이 능력을 키우고 발전시키는 데 중대한 차이를 가져온다. 책을 읽는 문화와 책을 읽지 않는 문화는 기억, 사유, 상상, 표현의 층위에서 상당히 다른 개인들을 만들어 내고, 상당한 질적 차이를 가진 사회적 주체들을 생산한다. 누구도 맹목적인 책 예찬자가 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을 더욱 인간적이게 하는 소중한 능력들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책은 결코 희생할 수 없는 매체라는 사실이다. 그 능력의 지속적 발전에 드는 비용은 싸지 않다. 무엇보다도 책 읽기는 손쉬운 일이 아니다. 거기에는 상당량의 정신 에너지가 투입돼야 하고, 훈련이 요구되고, 읽기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정신 습관의 형성이 필요하다.

- ① 인간의 기억과 상상
- ② 독서의 필요성과 어려움
- ③ 맹목적인 책 예찬론의 위험성
- ④ 책 읽기 능력 개발에 드는 비용

[정답] ② / 난이도 하

[정답 해설] 윗글에서는 책과 책 읽기가 인간이 기억/생각/상상/표현하는 능력을 키우고 발전시키는 데 중대한 차이를 가져온다고 하면서 독서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와 함께 책 읽기는 손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독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다.

[오답 풀이]

(생략)

[한 줄 평] 보너스 문제같은 느낌?

문 18. ㉠ ~ ㉣에 들어갈 적절한 접속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역사의 연구는 개별성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 자체에 대해 구명(究明)을 꾀하는 것이 역사학인 것이다. (㉡) 고구려가 한족과 투쟁한 일을 고구려라든가 한족이라든가 하는 구체적인 요소들을 빼 버리고, 단지 “자주적 대제국이 침략자와 투쟁하였다.”라고만 진술해 버리는 것은 한국사일 수가 없다. (㉢) 일정한 시대에 활약하던 특정한 인간 집단의 구체적인 활동을 서술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역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 | <u>㉠</u> | <u>㉡</u> | <u>㉢</u> |
|----------|----------|----------|
| ① 즉 | 가령 | 요컨대 |
| ② 가령 | 한편 | 역시 |
| ③ 이를테면 | 역시 | 결국 |
| ④ 다시 말해 | 만약 | 그런데 |

[정답] ① / 난이도 중하

[정답 해설] ㉠의 뒤 문장은 앞 문장에 대하여 동일한 의미로서 보충 설명을 하고 있으므로, ㉠에는 ‘즉’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의 뒤 문장은 앞에서 말한 두 문장에 대하여 예를 들며 설명하고 있으므로 ㉡에는 ‘가령’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의 뒤 문장은 필자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리한 것이므로 ㉢에는 ‘요컨대’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생략)

[한 줄 평] 자칫하면 어려울 수 있는 문제이지만, 선택지 간 변별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

문 19. 다음 시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마음도 한자리 못 앉아 있는 마음일 때,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를
가을 햇볕으로나 동무 삼아 따라가면,
어느새 등성이에 이르러 눈물 나고나.

제삿날 큰집에 모이는 불빛도 불빛이지만,
해질녘 울음이 타는 가을 강을 보겠네.

저것 봐, 저것 봐,
네보담도 내보담도
그 기쁜 첫사랑 산골 물소리가 사라지고
그다음 사랑 끝에 생긴 울음까지 녹아나고
이제는 미칠 일 하나로 바다에 다 와 가는
소리 죽은 가을 강을 처음 보겠네.

— 박재삼, 「울음이 타는 가을 강」 —

- ①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군.
- ② 첫사랑과 관련된 시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군.
- ③ 대조적 속성을 지닌 소재를 통해 정서를 부각하고 있군.
- ④ 전통적 어조를 사용해 예스러운 정감을 살리고 있군.

[정답] ② / 난이도 상

[정답 해설] 위 시에서 ‘첫사랑’과 관련된 시어는 3연의 ‘산골 물소리’ 말고는 없다. 첫사랑과 관련된 시어를 반복하지도 않았고, 그로 인해 운율도 형성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 ① 2연 2행의 ‘해질녘 울음이 타는 가을 강’은 시각적 이미지인 ‘가을 강’을 청각적 이미지인 ‘울음’으로 전이한 공감각적 표현이다.
- ③ ‘불’(햇볕/불빛)과 ‘물’(눈물/강)의 대조적 속성을 통해, 슬픔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④ 1연 4행의 종결 어미 ‘~고나’, 2연 2행과 3연 6행의 종결 어미 ‘~것네’ 등에서 시적 화자가 전통적인 어조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줄 평] 한자 문제를 제외하고, 오늘 시험 문제 중 가장 어려웠다고 느낄 수도 있었던 문제?

문 20.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길동이 “형님께서서는 염려하지 마시고, 내일 소제(小弟)를 잡아 보내시되, 장교 중에 부모와 처자 없는 자를 가리어 소제를 호송하시면 좋은 묘책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감사가 그 뜻을 알고자 하나 길동이 대답을 아니 하니, 감사가 그 생각을 알지 못해도 호송원을 그 말과 같이 뽑아 길동을 호송해 한양으로 올려 보냈다.

조정에서 길동이 잡혀 온다는 말을 듣고 훈련도감의 포수 수백을 남대문에 매복시키고는, “길동이 문 안에 들어오거든 일시에 총을 쏘아 잡으라.” 하고 명했다.

이때에 길동이 풍우같이 잡혀 오지만 어찌 그 기미를 모르리오. 동작 나루를 건너며 ‘비 우(雨)’ 자 셋을 써 공중에 날리고 왔다. 길동이 남대문 안에 드니 좌우의 포수가 일시에 총을 쏘았지만 총구에 물이 가득하여 할 수 없이 계획을 이루지 못했다.

길동이 대궐 문 밖에 다다라 자기를 잡아온 장교를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날 호송하여 이곳까지 왔으니 문죄 당해 죽지는 아니하리라.” 하고, 수레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갔다. 오군영(五軍營)의 기병들이 말을 달려 길동을 쏘려 했으나 말을 아무리 채찍질해 몬들 길동의 축지하는 법을 어찌 당하랴. 성 안의 모든 백성들이 그 신기한 수단을 헤아릴 수 없더라.

- ① 서술자가 길동의 장면 묘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 ② 호송하는 장교를 배려하는 길동의 면모가 드러나고 있다.
- ③ 비현실적 요소를 도입하여 길동의 남다름을 나타내고 있다.
- ④ 길동이 수레에서 탈출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정답] ④ / 난이도 중

[정답 해설] 4문단에서 길동이 수레에서 탈출하는 모습은 ‘천천히 걸어갔다.’라고만 서술되어 있지, 비유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 ① 3문단 첫째 줄의 ‘이때에 길동이~어찌 그 기미를 모르리오.’와, 4문단 다섯째 줄의 ‘길동의 축지하는 법을 어찌 당하랴’에서, 서술자가 길동의 장면 묘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4문단 둘째 줄에서 길동은 “너희는 날 호송하여 이곳까지 왔으니 문죄 당해 죽지는 아니하리라.”라고 말하며 호송해 온 장교를 배려하고 있다.
- ③ 3문단에서, 비현실적 요소가 도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 줄 평] 침착하게 읽으셨다면, 어렵지는 않게 답을 고를 수 있었던 문제